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미혼남녀의 결혼, 자녀 및 성역할 가치관 변화

홍해숙 · 김미예 · 최연희 · 박완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Abstract =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on Values of Marriage,
Childbearing and Gender Equality among Unmarried Youth

Hong Hae Sook · Mi Ye Kim · Yeon Hee Choi · Wan Ju Par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munity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values of marriage, childbearing and gender equality among unmarried youth.

Methods: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1,598 unmarried workers at 35 different facilities. Outreach education program was conducted 6 sessions for each facility from June to November in 2010. The collected three family values about marriage, childbearing, and gender equality were respectively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17.0.

Results: Value of marriage ($t=14.98$, $p<.001$) and childbearing ($t=11.53$, $p<.001$)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fter education about reconstructing their family values but no difference in gender equality.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community outreach education program can reform the reasonable and righteous value with family-friendly perspectives. Considering enriched population education for unmarried youth or premarital couples, creating the proper atmosphere is very important by using fully tailored access strategies to meet their needs. Therefore, when population educations for overcoming the falling birth rate are developed, tailored community outreach education program should be considered. Gender equality is still big issue how to solve it by education in our society.

Key Words: population education, marriage, childbearing, gender equality, values

서 론

교신저자: 박완주,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10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전화번호: 053-420-4977, 팩스번호: 053-421-2758
E-mail: wanjupark@knu.ac.kr
원고접수: 2011년 4월 19일, 원고채택: 2011년 7월 4일

최근 우리나라는 미혼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
피현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에는 2.39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15명까지 반으로 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09).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생산 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라는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위협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가시적 성과 미흡과 비용지출형 제도 도입 등으로 효율적 관리운영이 부족하였으며, 총 19.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06년 1.12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08년 1.19명에 비하면 오히려 하락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에 정부에서 2011년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 친화적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출산장려정책 제시와 지원에 앞서 미혼남녀나 예비부부와 가임기 여성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즉 출산장려 정책들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 해법의 하나로 결혼, 자녀 및 성역할 가치관 재정립이 우선이 되어, 인식개선과 동기부여의 연속선상에서 양성평등의 실현과 일가족양립의 사회인프라 지원이 확산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시대에 따른 가치관 변화로 인해 발생되며 올바른 가족가치관 형성은 저출산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정수웅, 2010). 따라서 결혼, 출산 및 성역할 가치관 및 인식변화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인구교육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용 가능한 모델형 교육방법이 부재인 상태이다.

2009년의 기혼여성의 출산실태에서 홀벌이 가정 1.72명, 맞벌이 가정 1.63명이었으나 공식 합계출산율은 1.15명 였다. 이는 기혼뿐만 아니라 미혼을 포함

한 가임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즉 이런 격차는 결혼 후 아이를 적게 낳는 부부들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미혼남녀들이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따라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미혼남녀에게 출산장려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을 한다면 궁극적인 저출산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결혼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결혼가치관은 개인적 가치에 대한 신념체계로 그 사회의 가치 규범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초혼 연령이 1981년보다 2009년에 남자는 5.2세, 여자는 5.5세 늦어지면서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현저히 낮아졌다(통계청, 2009).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족의 모습·기능 등의 변화와 함께 자녀교육비의 부담, 소득 및 고용불안정, 자녀양육의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가치관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자녀 자체를 갖는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으며(옥선화, 2000, Hoffmann,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서 발표한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이 2005년 보다 크게 낮아져 출산에 대한 의지가 4년 만에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사회 규범적 가치에 대한 신념체계인 성역할가치관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이 확대되면서 가족 내 육아 및 가사 등의 문제에서 점차 경제적 협력과 함께 가족 역할을 분업화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족 역할분담에 있어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가치관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이 혼재하는 이원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 평등의식은 여권신장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인권신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수적인 가치관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역할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수 영역이 되었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저해하는 중요한 일차적인 요인인 것이다(우은복, 2002). 이와 같은 결혼과 자녀, 성역할가치

관 같은 가족가치관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 과제이다.

지금까지 인구교육프로그램이 출산장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가치관 재정립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부각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자녀·성역할 가치관 재정립을 증진시킴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시키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가족가치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모델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출산장려 인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시급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모델형 출산장려인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능한 많은 미혼남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일회성 교육이 아닌 맞춤형 출산장려 인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인구교육프로그램이 그들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에 미치는 효과와 관계를 규명하는 단일군 전후설계연구(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이다. 연구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장려인구교육을 위해 D, G, P 시 소재의 경제협회 상공회 및 민간단체에게 인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인터넷이나 기관 공문으로 먼저 알린 후, 기관장이나 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유도하여 사기업 3곳, 금융기관 2곳, 대학교 3곳, 초중등학교 교사 그룹 3곳, 의료기관 5곳, 경찰청 2곳, 지역보건소 3곳, 공공기관 8곳, 일반주민단체 5곳, 미팅 이벤트 1곳의 총 35개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인 2,440명의 미혼남녀로 교육의 수혜자의 참여인원은 기관의 구성원과 규모에 따라 20명에서 200명까지의 달랐으며 부제인 <찾아가는 결혼 성공 사관학교>의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을 각 기관의 집단참여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 수혜자는 프로그램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한 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예비부부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윤리적 침해를 막기 위해 설문응답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문항작성 중 언제든지 응답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인구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총 2,440명 중 최종 분석된 자료는 전체 65.5%로 1,598명이었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0년 6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되었다. 대학생, 초중등 교사 및 지역주민의 세 그룹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이 행복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을 2007년부터 지속적사업으로 운영하는 본 대학의 노하우로 적극적인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의 모델형사업을 시도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한 35개 기관의 요구도 조사 후 본 연구팀이 독립적 주최로 교육내용과 운영방법을 기획·조정 및 평가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 수행되었다. 중재하기 전 지역단체 및 경제협회의 협력으로 참여에 신청한 35개의 기관 및 단체가 우선 선정되었으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 접근방법과 교육을 위한 제반 협조를 요청한 후 사전조사를 미리 실시하였다. 그 후 영역별 전문 강사요원인 대학교수 6인이 직접 각 기관에 찾아가서 총 6회기의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결혼, 자녀 및 성역할 가치관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

D, P, G 시의 미혼남녀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6회기의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으로 매회기 당 50~60분씩 총 6회기 동안 진행한 것을 말한다. <찾아가는 결혼성공 사관학교>라는 부제 아래 제공된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이다.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헌고찰과 정책방향과 더불어 9인의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이용하여 도출된 것으로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결혼에 대한 필요성, 성공적인 결혼전략과 대인관계술, 남녀의 차이, 자녀에 대한 의미,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신체 가꾸기, 부모됨의 준비와 적응, 성역할에 대한 양성평등 가족문화 가꾸기 등 저출산문제의 인식

개선과 결혼·자녀·성역할가치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사회적 인구현상을 분석·평가하는 능력과 교육 후 가치습득 및 내면화로 가치관 판단능력 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저출산관련 사회이론이나 결혼, 자녀, 출산, 성역할 관련 전문가인 6인의 교수가 35개의 각 기관과 단체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기존의 일회성 교육과 차별화된 맞춤형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시간 및 공간의 편의성을 위해 찾아가는 운영전략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집단교육을 말한다(표 1).

2) 결혼가치관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결혼관은 결혼과 관련된 개인적인 인식과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저자의 도구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김경신,

표 1.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N=6 sessions)

Family values	Education Contents	Session & Hour	Anticipated Outcomes
	Obtain factual knowledge or awareness		Obtain capability to cope with Rebuild adequate values
Marriage value	Low-birth rate phenomenon Korean society/family dynamic	1 st 50-60 min.	Positive attitude against social problem Capability of decision making
	Meaning of marriage Conflict & dissimilarity between sex about marriage Family is community life Right age at marriage	2 nd 50-60 min.	Obtain positive communication skill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 Strengthen family bonds Capability of early decision making Successful management of stress
Child-bearing value	Meaning of childbearing Meaning of offspring Right age at childbirth	3 rd 50-60 min.	Obtain reproductive basic values Positive attitude against childbearing Foster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Capability of decision making
	Meaning of being parents Parenting role & function	4 th 50-60 min.	Strengthen parenting ability Accept a model of good parenting Successful management of parenting
Gender equality value	Meaning of gender equality Bias & Idealistic distortion Gender discrimination	5 th 50-60 min.	Rebuild adequate gender equality Obtain women empowerment Successful stress 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Traditional values & behavior patterns Gender equality problems Ideal Gender equality	6 th 50-60 min.	Positive attitude against gender equality Capability of decision making Sharing gender role Family-friendly perspective

1998; 오윤희, 채정현, 2005; 윤미라, 2006)를 참고로 개발된 박영미(2010)의 결혼관 측정 설문지로 결혼 필요성, 결혼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결혼 필요성에 대해 2문항, 결혼가치에 대해 7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영미(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자녀가치관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자녀관은 부모의 입장에서 본 자녀에 대한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저자의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김경신, 1998; 오윤희, 채정현, 2005; 윤미라, 2006)를 참고로 개발된 박영미(2010)의 자녀관 측정 설문지로 자녀의 필요성 1문항, 자녀에 대한 가치척도는 10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영미(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4) 성역할가치관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저자의 도구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김경신, 1998; 안상수, 2008)를 참고로 개발된 박영미(2010)의 성역할 설문지로 남녀평등의식 4문항, 성역할 고정관념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평등의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영미(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은 paired t-test, one-way ANOVA로, 사후분석은 Duncan으로 분석하였다.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 전·후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의 차이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고,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되었다.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의 문항별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 전·후의 차이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성 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67.9%로 남자 32.1%보다 많았으며, 20대가 39.8%, 30대는 60.2%이었다. 근무형태로는 전문직이 60.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7.1%, 사무직 16.9%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53.3%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 20.4%, 고등학교 졸업 14.1%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으로 100~200만원 31.4%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28.9%, 300~400만원 20.7%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 36.2%, 둘째 28.1%, 셋째 15.7%순이었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36.3%이었고, 불교 25.4%, 기독교 23.5%, 천주교 13.1%순이었다. 앞으로의 경제적 전망으로 보통으로 생각하는 대상자 65.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제적 전망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6.7%, 경제적 전망이 못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7.6% 순이었다. 가족동거형태에서 핵가족 47.7%, 소가족 36.2%, 독신 8.3%, 대가족 7.8% 순이었다(표 2).

표 2. General characteristics

(N=1,598)

Variables	Categories	n	%
Sex	Male	513	32.1
	Female	1085	67.9
Age (yr)	20-29	636	39.8
	30-39	962	60.2
Working type	Clerks	298	16.9
	Management	38	2.2
	Productive & Service	62	3.5
	Professional	900	60.3
	Others	300	17.1
Education	Middle school	35	2.2
	High school	226	14.1
	Community College	326	20.4
	Undergraduate school	851	53.3
	≥ Graduate school	160	10.0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197	12.3
	101-200	501	31.4
	201-300	462	28.9
	301-400	330	20.7
	≤ 400	108	6.8
Birth order	Only child	72	4.5
	1st	579	36.2
	2nd	449	28.1
	3rd	251	15.7
	Above	247	15.5
Religion	Christian	375	23.5
	Buddhist	406	25.4
	Catholic	210	13.1
	Others	27	1.7
	None	580	36.3
Economic prospect	Positive	426	26.7
	Normal	1050	65.7
	Negative	122	7.6
Family type	Single	133	8.3
	Nuclear family	762	47.7
	Small family	579	36.2
	Large family	124	7.8
Total		1,598	10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자녀 및 성역할가치관에 대한 인식 차이

결혼가치관은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근무형태

별, 교육정도 및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결혼가치관 인식 평균점수는 남자 26.06점으로 여자 23.9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6.01$, $p<.001$). 연령에 따른 결혼가치관은 20대 25.67점이 30대 23.52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6.89$, $p<.001$).

근무형태별에 따른 결혼가치관을 살펴보면, 학생 및 기타 25.95점, 관리직 25.92점이, 사무직 25.69점, 생산·판매·서비스직 25.37점, 전문직 23.83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82$, $p=0.25$). 참여자의 결혼가치관 인식 평균 점수에서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 25.35점과 중학교 졸업 25.00점이 대학교 졸업 24.27점, 고등학교 졸업 23.79점, 대학원이상 23.1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09$, $p=.016$). 월평균 수입별로 살펴보면, 400만원 이상이 400만원 이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4.89$, $p<.001$). 자녀가치관은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근무형태별 및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녀가치관은 남자가 33.32점으로 여자 31.4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78$, $p<.001$).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연령층이 32.50점으로, 30대 연령층 31.14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13$, $p=.002$). 월평균 수입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과 100만 이하가 100~200만원, 200~300만원 보다 자녀가치관이 낮았다($F=4.50$, $p<.001$). 성역할가치관은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및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성역할가치관은 여자 22.64점이 남자 21.0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06$, $p<.001$).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연령층 22.57점으로, 30대 연령층 21.7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31$, $p=.021$).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29.00점이 고등학교 졸업 23.70점, 대학원 졸업 22.93점,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22.17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81$, $p<.001$). 월평균 수입에 따른 성역할 가치관은 400만원 이상 24.13점, 100만원 미만 23.36점이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원 22.72점, 다음으로 100~200만원 21.67점, 300~400만원 21.18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16$, $p<.001$) (표 3).

3. 인구교육프로그램의 사전·사후조사 차이

출산장려인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대상자의 결혼가치관 인식 평균 점수는 22.91점에서 참여

후 평균 점수 24.55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14.98$, $p<.001$).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대상자의 자녀가치관 인식 평균 점수는 30.09점에서 참여 후 32.0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11.53$, $p<.001$).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대상자의 성역할 가치관 인식 평균점수는 22.31점에서 참여 후는 22.3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4.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의 관계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결혼, 자녀, 성역할 가치관의 상관관계에서 결혼가치관은 자녀가치관과 정적상관관계($r=.658$, $p<.001$)가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가치관은 성역할가치관과, 자녀가치관과 성역할가치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5.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의 문항별 사전 사후 차이

교육 후 결혼가치관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결혼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전반적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것이다'의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1$) 긍정적 방향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에서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 진다',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받는다', '자녀가 없다면 생활의 재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의 문항이 유의하게($p<.001$) 긍정적 방향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생기면 부모는 즐기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의 문항이 더 높게 유의하게($p<.001$)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가치관에서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표 3. Marriage, Childbearing and Gender Equality Val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Marriage value			Childbearing value			Gender equality value		
		M±SD	t/F	P (Duncan)	M±SD	t/F	P (Duncan)	M±SD	t/F	P (Duncan)
Sex	Male	26.06±4.46	6.01	<.001	33.32±4.32	3.78	<.001	21.09±3.37	-4.06	<.001
	Female	23.90±3.89			31.49±4.45			22.64±3.57		
Age (yr)	20~29	25.67±4.21	6.89	<.001	32.50±4.56	3.13	.002	22.57±3.56	2.31	.021
	30~39	23.52±3.89			31.14±4.24			21.75±3.56		
Working type	Clerks	25.69±3.71 ^a	2.82	.025	32.70±6.28	.19	.942	23.17±3.11	.80	.528
	Management	25.92±3.68 ^b		(a<b)	32.75±3.30			21.75±2.06		
	Productive & Service	25.37±3.94 ^a			32.22±4.65			21.44±3.71		
	Professional	23.83±4.08 ^a			31.89±4.21			22.20±3.89		
Education	Others	25.95±4.49 ^b			31.93±5.13			22.55±4.37		
	Middle school	25.00±5.11 ^b	3.09	.016	32.00±5.12	3.21	.056	29.00±4.12 ^b	4.81	<.001
	High school	23.79±5.15 ^a		(a<b)	30.91±5.81			23.70±4.31 ^a		(a<b)
	Community College	25.35±3.81 ^b			32.77±3.83			22.17±3.18 ^a		
	Undergraduate	24.27±4.13 ^a			31.56±4.43			21.67±3.51 ^a		
	≥ Graduate School	23.12±4.29 ^a			32.19±4.60			22.93±3.48 ^a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24.00±4.87 ^b			31.29±5.16a			23.36±4.35 ^c		
	101~200	24.93±3.69 ^b	4.89	<.001	32.39±4.36b	4.50	.001	21.67±3.10 ^a	6.16	<.001
	201~300	25.11±4.80 ^b		(a<b)	32.79±4.14b		(a<b)	22.72±3.47 ^b		(a<b<c)
	301~400	23.44±3.69 ^b			30.59±4.70a			21.18±3.33 ^a		
Birth order	≤400	21.61±3.27 ^a			29.69±2.82a			24.13±4.26 ^c		
	Only child	26.13±3.99			34.10±4.51			22.79±3.48		
	1 st	24.74±4.37	3.32	.056	31.88±4.90	2.15	.074	22.60±3.52	1.87	.114
	2 nd	24.24±4.26			31.98±4.39			22.32±3.59		
Religion	3 rd	24.43±4.21			31.63±3.92			21.79±3.93		
	Above	23.33±3.63			31.18±3.72			21.19±3.28		
	Christian	24.61±4.21			32.22±4.58			22.40±3.19		
	Buddhist	25.22±4.27	1.78	.133	32.41±4.37	.66	.621	21.81±3.93	.39	.811
	Catholic	24.03±5.18			31.69±4.97			22.34±3.31		
	Others	27.20±3.11			30.40±10.01			22.40±3.21		
Economic prospect	None	24.04±4.23			31.67±4.09			22.34±3.76		
	Positive	24.73±4.62			32.56±4.72			22.52±3.95		
	Normal	24.29±4.06	.52	.597	31.64±4.36	1.77	.171	22.31±3.37	2.69	.069
	Negative	24.67±4.01			31.90±4.43			21.07±3.46		
Family type	Single	23.78±4.53			31.29±4.28			22.04±3.29		
	Nuclear family	24.10±3.98	1.86	.136	31.65±4.41	1.41	.239	22.00±3.54	.93	.422
	Small family	25.04±4.09			32.48±4.62			22.61±3.54		
	Large family	24.32±5.59			31.64±5.17			21.97±4.33		

표 4.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N=1,598)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Marriage value	22.91±3.76	24.55±4.18	14.98	<.001
Childbearing value	30.09±4.48	32.00±4.41	11.53	<.001
Gender equality value	22.31±3.46	22.35±3.58	.58	.565

똑 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p<.001$), ‘남자에게 바느질, 표 3)요리 등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p<.001$)’의 문항만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할 때 책임자는 남성이 되는 것이 좋다’인 역문항이 높게 나타났다($p=.025$) (표 6).

표 5. Correlation of Variables

(N=1,598)

	Marriage value	Childbearing value	Gender equality value
	r(p)	r(p)	r(p)
Marriage value	1	—	—
Childbearing value	.658 (<.001)	1	—
Gender equality value	-.003 (.944)	.007 (.888)	1

고 찰

본 연구의 맞춤형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은 교육 수혜자의 공간·시간적 편의성을 위해 직접 찾아가 접근용이성을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미혼남녀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참여의 학문적 교육내용 지원으로 동기부여 강화의 교육의 극대화를 시켰으며 재정적 지원을 외부에서 받음으로 무료참여로 보급성을 높인 점과 성공적인 평가로 이차적 프로그램의 요청이 확산되어 기존의 인구교육과 차별된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미혼남녀의 사전 결혼가치관 인식 평균점수는 22.9점, 자녀가치관 인식 평균점수는 30.1점 및 성역할 가치관 인식 평균점수는 22.3점이었다. 황선희(2010)의 연구에서 평균연령 42세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결혼가치관 23.9점, 자녀가치관 30.7점 및 성역할가치관 23.2점으로 나타나 이는 본 연구대상의 미혼남녀가 중등교사보다 낮은 가족가치관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결혼가치관이 낮은 결과는 결혼준비에 있는 미혼남녀 대상으로 출산장려인구교육의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요즈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변화양상이 보이고 있다(김태현, 2005). 즉, 미혼남녀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러 여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인

식이 증가하고 있다(이삼식, 2006). 따라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결혼가치관을 변화시켜 줄 인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은 결혼가치관의 인식변화를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t=14.98$, $p<.001$). 교육 후 결혼가치관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결혼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전반적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것이다’의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방향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결혼가치관을 향상시켰던 문숙재(2006)의 연구와 청소년에게 출산장려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의 사회적 의미를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꾼 정수웅(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결혼가치관이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가고(Haydon, 2004) 있고,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용납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재빠르게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결혼기대의 저하로 결혼률이 떨어지면서 근원적인 저출산 문제에 봉착하게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결혼이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선택할 수 있다는 위기적 시점에 미혼남녀의 올바른 결혼가치관의 신념체계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은 자녀가치관의 인식변화를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t=11.53$, $p<.001$). 교육 후 자녀가치관에서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

표 6. Comparison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ccording to Questionnaire Items

(N=1,598)

Items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Marriage	1 Marriage is must.	2.60	.928	3.08	.853	-13.378 <.001
	2 Marriage can provide emotional stability.	2.77	.803	3.15	.697	-10.925 <.001
	3 I may not get married for my career or studies.	2.55	.884	2.55	.878	-.064 .949
	4 I won't be as freely as if I get married.	2.78	.731	2.78	.849	.000 1.000
	5 In general, marriage will make me happier.	2.74	.781	3.07	.660	-9.107 <.001
	6 Having a family through marriage will be a burden on me.	2.41	.782	2.45	.785	-1.038 .300
	7 Marriage will make me hard to focus on my career.	2.29	.775	2.32	.824	-.662 .509
	8 Through marriage, I can be socially and financially independent.	2.58	.763	2.88	.796	-8.568 <.001
	9 By marrying I can serve my parents better.	2.75	.842	2.88	.814	-7.119 <.001
Child-bearing	1 Married couple must have children.	2.75	.842	3.14	.830	-10.684 <.001
	2 Being a parent is a valuable experience in life.	2.98	.792	3.36	.651	-10.321 <.001
	3 Parents should give up things they used to enjoy after having children.	2.54	.885	2.81	.736	-4.907 <.001
	4 Children are financial burden.	2.55	1.234	2.63	.7531	-1.362 .174
	5 People with children are less lonely at old age.	2.88	.769	3.26	.720	-11.509 <.001
	6 Taking care children is annoying and troublesome.	2.15	.842	2.09	.805	1.759 .079
	7 Children makes conjugal relations better.	2.87	.722	3.18	.711	-9.261 <.001
	8 One should be a parent to clarify family role and to achieve recognition.	2.67	.760	2.90	.729	-6.348 <.001
	9 Marriage won't be enjoyable without children.	2.71	.774	2.96	.766	-6.773 <.001
	10 Raising children is a wonderful value.	2.95	.771	3.26	.750	-8.863 <.001
Gender equality	11 Children give psychological burden..	2.33	.820	2.38	.801	-1.303 .193
	1 Men and women have different intellectual capacity.	2.23	.912	2.30	.974	-1.912 .057
	2 When men and women are working together, it is better to have man be in charge.	2.02	.807	2.10	.850	-2.243 .025
	3 Men are better in politics and economics than women.	2.08	.817	2.10	.863	-.557 .578
	4 Wife and husband should have equal power of decision in marriage.	2.86	1.415	3.19	.828	-4.586 <.001
	5 Husbands are responsible for living	2.45	.857	2.51	.849	-1.652 .099
	6 Women should work and be devoted to family at the same time.	2.48	.838	2.48	.859	.185 .854
	7 In marriage, it is desirable for men to have job and women to do housework.	2.08	.877	2.04	.846	1.016 .310
	8 It is desirable to teach men sewing and cooking.	2.74	.843	3.04	.794	-8.697 <.001

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 받는다', '자녀가 없다면 생활의 재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의 문항이 유의하게 긍정적 방향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수웅(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교육을 실시한 결과 자녀를 갖는 행위가 가치 있는 일로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삼식 등(2005)에 의하면 1997년에 73.7%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으나 2005년에는 44.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더구나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도 12.6%나 되었다.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무자녀 부부나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옥선화, 2000). 앞으로 미혼남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무자녀 혹은 출산율 감소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미혼남녀들의 자녀가치관의 인식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출산장려교육의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가치관의 인식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 후 성역할가치관에서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 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남자에게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문항만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남녀의 의사결정권, 바람직한 역할상 등의 문항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남녀들로 성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수웅(201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교육을 실시한 결과, 중재군과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오랜 역사를 통해 부계사회의 남성중심의 성차별이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어서(Kagitcibas, 1982) 단기적인 출산장려교육을 통하여 성역할가치관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김태현, 2005) 하였다. 또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미혼 남녀의 결혼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어 결혼시기를 늦추고 있으며(Bumpass, 2004)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이 결혼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ufman, 2000). 성 불평등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도 제한되고 왜곡시키고 있으며(Kluckhohn, 2001) 결국 올바른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의 역할관계를 평등하게 인식할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Olson, & Olson, 2000; Park & Liao, 2000). 따라서 미혼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신장될 수 있는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장기적인 적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는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자녀가치관의 인식정도가 높았다. 김혜환(2008)의 연구에서 결혼의 필요성과 결혼 의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출산장려인구교육 중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자녀 출산과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주희(2009)의 연구에서도 결혼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응답한 자가 자녀출산이 생활의 의욕을 주고 부부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녀 친화적 가치관 인식 전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에 대한 인식정도는 낮았으나 성역할가치관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았다. 이는 김주미(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여교사에 비해 남교사가 결혼가치관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던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고정자(2004)의 연구에서도 미혼 남성에게 비해 미혼여성의 결혼가치관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으로 인하여 감수하여야 할 새로운 가족간의

관계, 일과 가정과의 양립, 양육문제 등에서의 어려운 사항이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혜환(2008)의 연구에서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였다. 즉, 미래의 가임세대인 미혼여성의 자녀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저출산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일치될 때 결혼 적응도가 높았다고 하였고(우은복, 2020; Park & Liao, 2000),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부가 부부의 역할 관계를 평등하게 인식할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변주수, 2007)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성별 차이는 향후 부부간의 갈등을 예측하게 하므로, 미혼여성의 성역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성별간 차이를 줄이는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대 연령층이 30대 연령층 보다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에 대한 인식정도가 모두 높았다. 김혜환(2008)의 연구에서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았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미혼남녀들이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미혼으로 남아있는 고연령층일수록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못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경우에도 만혼이나 평생 비혼으로 이어져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은기수(2001)는 자녀가 필요한 이유에서 젊은 층은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준다는 정서적 가치에 비중을 둔 반면에 중년층은 자녀가 가문계승이나 노후안정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연령에 따라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녀호용가치의 차이가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다자녀보다 소자녀를 더 선호할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기대를 투입될 수 있는 변수에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자신이 가족 응집력의 경험, 정서적 애착, 이성교제 관계의 질 등이 있다(이삼식, 2006). 이 모든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윤미라(2005)는 결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은 취업여부인 반면에 여성은 가족체계에서 겪는 정서적 경험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향후 가족가치관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맞춤형 출산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의 성과는 대체로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추후에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고려하여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사회규범적 환경 등과 같은 사회생태학 측면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아버지의 가사 및 자녀돌봄 참여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성역할가치관 교육의 횟수는 6회보다 더 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므로(Pinquant & Silbereisen, 2004)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성역할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익광고나 캠페인, 아버지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건강한 가족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신뢰하고 소통하는 가족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족가치를 재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의 하나인 출산력 회복을 위해, 결혼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설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모델형 인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혼남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범국민적으로 확대하고, 자유롭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인구교육프로그램이 접근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찾아가는 결혼성공 사관학교>라는 출산

장려인구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10년 6월1일부터 11월 23일까지 D, G, P시의 35개의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신청으로 1,598명의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박영미(2010)의 결혼관 측정 설문지와 자녀관 측정 설문지 및 성역할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 대상자의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인식 정도는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성역할 가치관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6회기의 단계적인 출산장려 인구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성역할 가치관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인식 정도는 학력이 높고 고소득의 30대 연령층의 여자들이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출산장려교육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사회 규범적 가치에 대한 신념 재정립과 성 평등의식 개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가족가치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모델형 중재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고정자. 가족개념인식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연구논문집 2004;12:5-17
김경신.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998;128:145-160
김태현.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2005;102:16-24
김주미.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교육과제에 대한 초등학교교사들의 인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혜환.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중등학생과 미혼남녀(20-29세) 실태 조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문숙재.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06;10(1):33-51
박영미. 중학교 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출산장려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주희.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9;27(2):29-43
변주수. 가족가치관과 돌봄노동지원정책 육구의 관련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안상수. 성평등의식의 과거와 현주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오윤희, 채정현.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세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05;17(2):239-255
옥선화. 결혼과 가족. 하우출판사, 춘천, 2000
우은복.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의 과제. 한국교육연구 2002;8(1):83-106
윤미라.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은기수.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01;24(4):241-258
이삼식.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006;26(2):95-111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et al.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2005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서울, 2000
정수웅. 한국출산장려교육이 학생들의 가족관련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통계청. 2009 출생통계. [cited 2011 Mar. 29] URL: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서울, 2010
황선희. 일 지역 중등 보건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저출산 대비 보건교육.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Bumpass, LL. Social Change and the American Famil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04;1038:213-219
Haydon, G. Values education: sustaining the ethical environ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04;33(2):115-130
Hoffmann, LW.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Basic Books, 2000
Kagitcibasi, C. Old-age security value of children : Cross-national socioeconomic evidenc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82;13:29-42
Kaufman, G. Do gender role attitudes matter?: Family formation and dissolution among traditional

- and Egalitarian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2000;21(1):128-144
- Kluckhohn, FR. Variations in the basic values of family systems, in Bell, N. & Vogel, E. (Ed).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2001
- Olson, DH, Olson, AK. *Empowering couples*.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Inc. 2000
- Park, J, Liao, TF.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men professors: Role changes a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2000
- Pinquart, M, Silbereisen, RK. Transmission of values from adolescents to their parents: The role of value content and authoritative parenting. *Adolescence* 2004;39(153):83-100